

# 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선행 PER 7 배 이하에서는 악재보다 호재에 귀를 기울여야...



[투자전략팀]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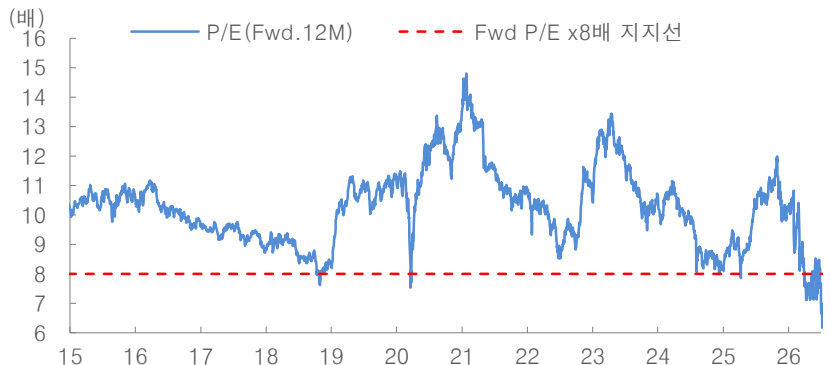
선행 PER 6배 초반(금융위기 저점 하회),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해지는 시장이 될 것

-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9,385.59p(6월 고점)에서 7,200선대로 밀려남. 중요 지지선인 40,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 상승추세 훼손 우려 증폭. 이번 급락은 실적 악화보다 반도체 중심의 과도한 쏠림 현상과 레버리지 투자 청산이 겹치면서 발생한 투자심리 위축, 수급 충격 간의 악순환의 고리 형성 영향
- KOSPI 급락, 레벨다운 국면에도 불구하고 선행 EPS는 1,174p(7월 9일 기준, 6월 31일 EPS 1,105p)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기/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 중. 그 결과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6.17배(6월 8일 저점) 수준으로 레벨다운. 금융위기 당시 KOSPI가 1,000선을 이탈했을 당시 저점(6.27배)보다 낮은 것. 선행 ROE - PBR Matrix 기준으로도 적정 PBR대비 17.35% 저평가 수준
- KOSPI는 현재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에 위치. 중요 지지선을 하회한 만큼 추세 반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작은 호재에도 급반전이 가능한 지수대로 판단. 3월말 ~ 4월초에도 최근 상황과 유사한 흐름 전개.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으로 인한 채권금리, 달러화, 원/달러 환율 레벨업으로 KOSPI는 5,000선 하향이탈 위험에 직면. 하지만, 종전/휴전 기대 유입에 4월 1일 8.44%, 8일 6.87% 급등했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맞물리면서 KOSPI는 3월 31일 5,052p를 저점으로 6월 19일 9,385p까지 거침 없는 상승세를 이어감
- 현재 KOSPI는 당시보다 고점대비 낙폭이 더 크고, 밸류에이션 수준(당시 선행 PER 7.12배, 현재 6.17배)은 더 낮아져 가격/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높음. 멀지 않은 시점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음주 14일 공개되는 6월 CPI 결과가 1차 분기점.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제공하는 Inflation Now 기준 6월 CPI 예상치는 전년 대비 3.92%로 5월 4.2%에서 둔화되고, 전월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반전 가능성을 높게 봄. 이 경우 물가 부담 - 금리인상 우려 확대 - 채권금리/달러 고공행진 흐름에 균열이 가해지며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 안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음. 미국과 이란 간 무력공격 재개 또한 멀지 않은 시점에 실무협상이 지속되고 있을 확인한다면 또다른 안도 심리 유입 포인트가 될 것
-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 또한 KOSPI 분위기 반전, 상승 탄력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음.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수출주들의 실적 호조 예상. 반도체를 제외한 2분기 수출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14.1%로 모멘텀 강화(1분기 4.5%). 반면, 비반도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반전(1분기 95.8%에서 -4.6%) 예상. 비반도체 실적 기대가 크게 낮은 상황
- 실적 시즌을 앞두고, KOSPI 조정, 레벨다운은 다수 업종의 저평가 매력 확대. 고평가 영역에 위치해있던 반도체까지 저평가 영역으로 전환. 중요 지지선은 7,000선대로, 이탈 시 UnderShooting 국면.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매수, 매집 전략 필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장**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OSPI 선행 PER은 6.21배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배 하회. 극심한 저평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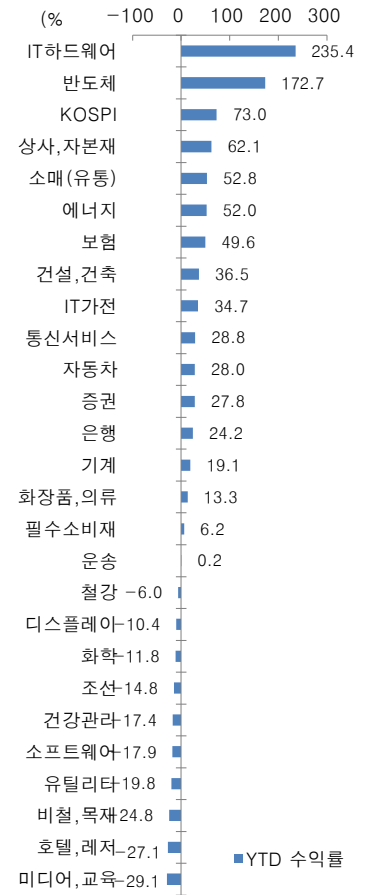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0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p)	등락율(%)						
		1D	1W	1M	3M	6M	12M	YTD
<b>KOSPI</b>	7,292	0.6	-4.7	-9.9	26.2	59.0	132.7	73.0
에너지	7,243	1.2	-5.9	-1.4	10.8	47.5	64.9	52.0
화학	3,946	0.2	-9.1	-19.5	-24.9	-7.2	4.8	-11.8
비철, 목재	5,317	-2.5	-6.7	-16.3	-34.0	-17.8	-6.4	-24.8
철강	2,041	-2.2	-6.2	-18.4	-22.4	-5.2	-9.6	-6.0
건설, 건축	2,075	-1.0	-9.9	-11.1	-29.9	34.8	31.5	36.5
기계	10,670	0.3	-16.2	-18.0	-12.6	10.2	49.0	19.1
조선	7,430	-2.7	-13.6	-17.5	-20.3	-25.7	11.5	-14.8
상사, 자본재	5,629	-3.9	-10.1	-11.1	10.5	37.9	104.4	62.1
운송	1,766	-4.3	-3.0	1.3	-4.3	-2.0	-5.0	0.2
자동차	15,173	-4.7	-4.5	-22.3	-3.4	13.5	63.9	28.0
화장품, 의류	5,556	-4.5	-5.2	-1.2	-0.6	14.9	4.0	13.3
호텔, 레저	1,684	-2.5	-3.2	-9.0	-15.3	-23.6	-29.4	-27.1
미디어, 교육	559	-3.5	1.4	2.6	-12.5	-28.2	-23.9	-29.1
소매(유통)	3,080	-2.2	-8.2	-5.0	25.4	52.1	49.1	52.8
필수소비재	7,233	-3.3	-0.3	-2.2	-0.6	8.0	-0.6	6.2
건강관리	8,745	-2.4	-4.1	-1.4	-15.6	-24.7	0.6	-17.4
은행	3,324	-1.1	1.7	3.8	2.9	24.7	28.6	24.2
증권	2,869	-3.1	0.0	-9.9	-19.6	25.1	29.4	27.8
보험	15,536	-5.7	-5.7	-10.7	26.2	54.9	60.0	49.6
소프트웨어	5,882	-3.3	-6.6	-21.6	-8.6	-19.5	-23.4	-17.9
IT하드웨어	4,596	0.8	-20.9	-25.5	111.6	237.8	465.8	235.4
반도체	56,664	2.7	-2.2	-7.8	66.6	136.4	470.8	172.7
IT가전	2,495	-4.0	-11.6	-24.1	-7.3	35.4	79.9	34.7
디스플레이	632	-4.7	-2.4	-22.5	-10.9	-10.7	3.9	-10.4
통신서비스	473	3.6	2.8	-8.5	-6.4	30.6	23.9	28.8
유틸리티	1,088	-2.9	-6.7	-5.2	-22.1	-22.5	-10.1	-19.8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9.3	16.4	17.3	3.6	3.2	3.3	18.5	19.3	19.1	1.7	2.3	▲
선진국	20.8	17.9	18.8	3.9	3.5	3.6	18.6	19.3	19.1	1.6	1.7	▲
신흥국	12.7	10.3	11.2	2.3	2.0	2.1	18.2	19.4	18.9	2.1	4.9	▲
북미	22.7	19.1	20.1	5.0	4.4	4.6	22.1	22.8	22.7	1.9	3.3	▲
유럽	15.9	14.4	14.9	2.4	2.2	2.3	15.1	15.5	15.4	1.2	-0.7	▽
퍼시픽	17.4	15.7	16.6	1.9	1.8	1.9	11.1	11.5	11.3	0.4	0.6	▲
라틴	9.7	9.2	9.4	1.9	1.7	1.8	19.8	18.9	19.3	-0.2	-2.1	▽
EM 유럽	10.3	8.9	9.4	1.5	1.3	1.4	14.3	14.7	14.7	1.9	-1.1	▽
EM 아시아	13.3	10.5	11.6	2.4	2.1	2.2	18.3	19.8	19.2	2.6	6.5	▲
선진 시장												
S&P 500	22.7	19.0	20.0	5.2	4.5	4.7	22.7	23.5	23.3	1.9	3.0	▲
NASDAQ	29.2	22.1	23.8	7.0	5.7	6.0	23.8	25.7	25.4	3.4	5.8	▲
프랑스	15.3	14.1	14.5	2.0	1.9	1.9	13.3	13.5	13.4	0.5	1.4	▲
독일	15.6	13.5	14.2	1.8	1.7	1.7	11.6	12.4	12.2	1.2	0.2	▲
영국	12.8	11.9	12.3	2.2	2.0	2.1	17.2	17.2	17.2	0.1	0.9	
일본	17.3	15.4	16.6	1.9	1.8	1.8	10.9	11.4	11.1	1.3	3.4	▲
신흥 시장												
중국	10.9	9.5	10.1	1.2	1.1	1.2	11.4	12.0	11.7	1.0	0.6	▲
인도	21.5	18.2	20.3	3.0	2.7	2.9	14.1	14.8	14.4	0.3	0.2	▲
한국	8.7	6.3	7.1	2.7	2.0	2.2	30.9	31.4	31.3	4.6	14.8	▲
대만	24.9	19.5	21.4	5.5	4.6	4.9	22.0	23.5	22.9	3.1	5.2	▲
브라질	8.2	7.9	8.0	1.7	1.5	1.6	20.6	19.4	19.9	-0.7	-0.4	

기준일: 2026.07.08

자료: V/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7.3			○			●				
선진국	18.8				○		●				
신흥국	11.2		○	●							
북미	20.1			○			●				
유럽	14.9							○	●		
퍼시픽	16.6							○	●		
라틴	9.4						○	●			
EM 유럽	9.4								○		●
EM 아시아	11.6		○	●							
S&P 500	20.0		○				●				
NASDAQ	23.8		○	●							
프랑스	14.5						○	●			
독일	14.2						○	●			
영국	12.3					○		●			
일본	16.6								○	●	
중국	10.1				○ ●						
인도	20.3			○ ●							
한국	7.1		○ ●								
대만	21.4									○	●
브라질	8.0					○	●				

기준일: 2026.07.08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27.8	17.6	12.5	15.0
	선진국	22.0	16.2	13.0	14.6
	신흥국	61.5	23.7	10.4	17.1
권역(소)	북미	24.6	18.7	14.3	16.5
	유럽	17.3	10.4	10.3	10.4
	퍼시픽	14.3	10.9	8.7	9.8
	라틴	28.9	4.6	7.0	5.8
	EM 유럽	18.3	16.0	11.3	13.7
	EM 아시아	74.3	27.4	11.2	19.3
선진국	S&P 500	25.3	19.3	14.6	16.9
	NASDAQ	44.0	33.0	20.4	26.7
	프랑스	21.0	8.4	9.4	8.9
	독일	8.1	15.7	13.9	14.8
	영국	18.7	7.6	8.1	7.9
	일본	14.8	12.7	10.2	11.4
신흥국	중국	13.4	15.1	13.2	14.2
	인도	10.7	17.7	13.1	15.4
	한국	304.4	38.0	4.1	21.0
	유럽	17.3	10.4	10.3	10.4
	브라질	37.5	3.4	7.5	5.4

기준일: 2026.07.08

자료: V/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